하노버교회 기도편지 2025.7.2

기도 제목 - Prayer Points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14).

열방부흥축제(8.6-12)를 통해서 웨일즈 성도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부흥을 사모하게 하소서. 치유 예배(9.19-20)를 통해서 하노버 교회가 웨일즈 부흥의 영적 우물이 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에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으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가리(Gary), 알리슨(Alison), 크리스(Kriss), 디온(Dion), 잭(Jacek)이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지로 성장하게 하소서. 겨레 가정(요르단)이 섬기는 직장(UNICEF)과 교회에 복이 되게 하소서. 나라(런던)의 섬기는 직장과 교회에 복이 되게 하시고, 10 월(10.18) 결혼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어머님(홍길자 권사)이 신실한 믿음으로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노버 교회를 열정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소서. 육신의 질병에서 성도들을 치료해 주소서: 안젤라(암수술), 제리(당뇨), 잭 (심장), 데이빗(심장).

성령 강림 주일 - Pentecost Sunday (8 June)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사도행전 오순절의 역사처럼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 기름부으심을 사모하며 뜨겁게 예배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초대한 이웃 친구들과 한국에서 방문한 바우리 본부장 팀과 24 시간 예배 팀이 함께 춤추며 깃발을 흔들며 양각 나팔을 불며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Pentecost Sunday)

24 시간 예배 - 24hs Worship (11-12 June)

지난 일년동안 한국의 24 시간 예배팀(Run-Korea, 이주만 선교사)과 기도로 준비해온 24 시간 연속 예배가 6 월 11 일 오후 3 시에 시작해서 6 월 12 일 오후 3 시에 마쳤습니다. 16 예배 팀이 90 분씩 맡아 찬양을 인도하고 북과 드럼 깃발 춤으로 자녀들과 참석자들이 함께 동참한 감동이 넘치는 예배였습니다. 늦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예배로 불켜진 예배당의 모습은 너무나 감격스러워 보고 또 보고 싶은 장면입니다.

(24hs worship)

Nick 의 간증 - Nick's Testimony

24 시간 예배 마치고 성찬식을 하기전 Nick 이 간증을 했습니다. 닉은 오랜 세월 무신론자로 초혼자(spiritists) 모임에 참여해오다 10 여년 전 하노버교회를 방문한 한국 단기팀을 만나 복음을 듣고 그 후 복음의 생명이 물방울처럼 잔잔히 그의 영혼을 침투해 마침내 개종하고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닉은 거리 전도에도 참여해 찬양을 할 만큼 복음에 뜨거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닉의 간증은 오래전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모두에게 많은 감동과 감격을 선물했습니다.

(Nick 간증)

(Nick 찬양인도)

방문자 - Pilgrims

김문영 바울선교회 본부장님과 신종훈 이사님 팀이 웨일즈와 하노버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리고 설교 말씀 특별 찬양 축도로 함께 해주셔서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24 시간 예배팀(Run-Korea)도 주일 예배에 함께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런던의 한인교회 집사님들이 하노버교회를 방문해 먼저 기도하고 토마스 선교 정신으로 이웃 웨일즈 교회를 섬기며 전도하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the Paul Mission)

(Run-Korea)

(Full Gospel, London)